

# “농어민이 잘 살아야 선진국...농어업 디지털 전환 박차”

##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 홍문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해방 이후 8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문화강국으로 거듭났다. 202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GNI)에서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하는 등 세계 어느 국가도 해보지 못한 업적을 이뤘다. 뛰어난 민중성, 근면·성실함, 우수한 두뇌, 불편을 참지 못하는 습성, 세계 경제 흐름과의 조화 등의 요소가 다행히 일치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해방 이후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나 전쟁을 겪고 국가 재건에 청춘과 일생을 바쳤던 70·80대들의 땀방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과는 상상하기 어렵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뤄 성공한 해방 1세대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변변한 일자리도 없었던 시기, 밑바닥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각고의 노력과 창의적 사고로 몇 단계를 뛰어넘어 최고의 위치에 올랐으며, 뛰어난 실적으로 주변의 인정을 받아 그 자리를 지켰다.

2024년 8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으로 변신한 홍문표(77) 전 국회의원을 만났다. 환철한 키에 잘생긴 이목구비, 세련된 매너와 나이를 잊게 하는 산뜻한 옷차림이 우선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랜 시간 태권도, 유도, 검도 등으로 다져진 몸매 스펀트레이징과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는 그는 서울, 세종, 빛가람혁신도시를 오가며 바쁘게 살고 있다.

### 면세유 연장·농기계 임대법 주도 ‘농어촌 대통령’ 불린 4선 의원 출신 농수축산물 유통 구조 1~2단계로 줄여 그 혜택 생산자에 돌려 드릴 것

국회의원 임기 16년 가운데 14년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지낸 홍 사장은 농수산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다. 여기에 면세유 5년 연장법, 농기계 임대법 등의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농지연금제도 최초 도입 등 농어업 발전 기반 마련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농어민들에게 ‘농어촌 대통령’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었다. 특히 지난 2007년 농어민 면세유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농업용 면세유 연장법을 대표 발의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 어느 별명보다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그에게 성장 과정, 정치인으로서의 고뇌, 공사 경영 방침, 농수산물 유통 혁신 과제 등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는 신사업을 육성해 미래성장 산업으로 농어업을 개편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항상 농어촌, 농어민만 생각하며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생각해 온 것으로, 이를 현장에서 실현시킬 기회가 생겨 기쁜 마음이다.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이다.

▲1967년 신민당 대표위원 유진오 박사 선거 운동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985년 6월 이재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일찍부터 정치에 뜻을 두며 57년간 우리나라 정치를 경험했다. 국회의원 출마는 지난 1988년 제13대 선거부터 시작했으나 뜻을 이룬 것은 16년만인 제17대 선거에서 가능했다. 그리고 한 번 낙선해 모두 16년간 국회에 있었고 그 중 14년을 농해수위원회에 있었다. 자연스럽게 농어촌 전문가, 농어민 수호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농민의 아들이었고,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동곡마을에서 태어나 아직까지 주소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향에 대한 진심을 항상 간직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러시아 의회교포포럼 회장 등을 거쳤고, 2008~2011년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지냈다. 이 모든 경험과 노하우, 정치 경력, 인적 네트워크 등을 농수산물 유통에 쏟아 부을 각오다.

-언뜻 보면 고생 한 번 안 해 본 얼굴이다. ▲해방 이후 1960년대 우리나라 시골마을이

어떤 모습이었을 지를 상상해보라.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먼 서기나 학교 교사가 최고의 직업으로 여겨졌던 시대다.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출을 해 서울로 향했다. 서울역에 내려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 신호등을 처음 봤다. 불빛에 맞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 패싸움을 하는 줄 알 정도로 무지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바 있는 조병옥 박사를 모셨던 김사진이라는 분을 집안끼리 알고 지냈는데, 돈암동에서 살고 있는 그를 무작정 찾아갔다. 거처할 곳을 얻은 뒤 처음에는 미아리 미도극장에서 구두닦이들에게 구두를 가져다주는 일을 하다가 신문 배달을 거쳐 물지계를 낚았다. 덩치가 있어 힘이 좀 많이 보인다고 소개를 받은 것이다. 양쪽에 물지계를 지고, 수도가 없었던 고지대 판잣집, 양계장 등에 물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그러다가 문득 중학교 때 공부하던 시절 꿈이 생각났다. 당시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형성되기 전이었고, 주먹이나 권력이 먼저였는데, 이를 바로 잡으려면 법관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서울 돈암동에 청산학원이라는 검정고시 학원에 들어가 뒤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그는 60년 이상 지난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름, 명칭 등을 마치 어제 일처럼 술술 이야기했다.)

-건국대학교 농대에 입학했는데.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남신보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신규보증 대폭 늘린다

### 전년비 1000억 증액 4500억 제공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전남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해 4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업체당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심사 간소화 등 업무효율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은 3%~3.5%의 이자를 전남도로부터 지원받아 실제로는 2%내외의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도내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시장 친화적 보증 상품도 내놓았

다. 민생지원 특별보증(1000억원), 지방소멸 대응 특별보증(500억원), 소기업 지원 특별보증(500억원), 신중년 지원 특별보증(100억원) 등 다양한 신상품을 대거 출시했다. 성실 실패 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재도전 특례보증도 1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금융버스 ‘가드림’은 전남신보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협업해 보증 상담·대출·경영지도·금융복지·보건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서비스로, 올해 매주 1차례씩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13차례 시범 운영을 통해 도민평가단 시책평가 최우수에 선정됐다. 성공적인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비금융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창업학습 및 경영개선 교육 프로그램(1830업체), 성장유망기업 육성(5업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구축(50업체), 골목시장 경쟁력 강화(15업체)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해 폐업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영 진단, 폐업 지원(철거비 최대 300만원), 재창업 일자리 연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남도와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 “올해 전남신보는 전남도 정책과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 실행하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호남권 미래내일 일경험 광주상의 성과 홍보·공유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 7일 ‘2024년 호남권 미래내일 일경험 성과홍보회’를 개최했다. 홍보회는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지원센터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일경험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호남권지원센터 성과보고 ▲호남권 미래내일 일경험 공모전 시상 ▲우수사례 발표(프로그램 운영, 참여수기, 참여영상, 프로젝트 수행) ▲차년도 사업추진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호남권지원센터 운영 주요성과는 104개 참여기업 발굴과 76개 기업 운영기관 연계매칭, 17개 운영기관 발굴 등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사업설명회 6회, 거버넌스 운영 4회, 운영기관 정기회의 10회, 보도자료 배포 18회,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홍보와 네트워크 활동을 펼쳤다. 또 이날 2024년 호남권 미래내일 일경험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병행해 공모전 수상자 21명에게 총 10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4만8천명이었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규모를 올해 5만8천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과 일자리 매칭을 유도할 계획으로 호남권 기업들이 일경험사업에 많은 참여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야구인생 위기의 연속...긍정적 마인드로 극복”

### 광주경총 금요초찬포럼 김성한 전 감독 초청 강연

“야구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임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마지막 감독이자 기아 타이거즈 초대 감독인 ‘레전드’ 김성한 감독이 지난 7일 광주경총자총협회(광주경총) ‘제 1674회 금요초찬포럼’ 강연자로 나섰다. (사진) 김성한 감독은 ‘나의 인생 나의 야구’를 주제로 자신 경험한 50년 야구 이야기를 풀어냈다. 김 감독은 가장 먼저 야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감독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야구부 감독에게 직접 발탁이 돼 야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시작하자마자 주전선수로 활약했다”고 말했다. 야구선수로 초등학교 때부터 승승장구했다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야구를 그만뒀어야 할 위기에 처했으나, 추천제로 진행되던 중학교 배정에서 다행히 야구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해 야구를 이어갈 수 있었다. 김 감독은 중학교 시절 식당을 운영하던 어머니가 사랑하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방황을 했고 야구를 손에서 놓았지만, 당시 교감이었던 이준원 선생님의 도움으로 속삭이를 해결하며 야구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다.

이후 군산상고에 진학한 김 감독은 수많은 동료들과 우승을 거두며 대학에 진학했고, 1982년 프로야구 창설에 맞춰 해태타이거즈에 입단, 7번의 우승과 대기록을 작성했다. 김 감독은 오랜 야구인생 동안 후회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김 감독은 “프로선수과 감독 생활로 늘 낯선 신경과 전투적인 모습이 익숙해지면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잊게 됐던 게 후회가 된다”며 “특히 야구를 그만둔 후 사회에 나오게 되면 인간관계가 중요해 주기 때문에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신세계 ‘수건케이크 맛 보세요’ 9일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디저트 카페 ‘아늑한’ 직원이 최근 SNS를 통해 유행하고 있는 수건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4일까지 수건케이크 팝업 매장을 연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세관장, K-드링크 수출기업 현장 방문

### FTA 혜택·관세행정 지원 약속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이 지난 7일 담양의 식음료 제조 전문기업인 ㈜자연과사람들 담양공장을 찾아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들었다. 2001년 설립된 ㈜자연과사람들은 청정지역이며 죽향이 유명한 담양의 1만 2000평 대지 위에 위생적인 생산설비를 갖춘 음료 전문 생산기업이다. 햇썬(FHACCP)과 품질경영시스템 FSSC 22000, ISO9001, 유기농식품인증 등 다수의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해 최상의 품질 제품을 생산

하고 있다. 주문자 생산 방식(OEM)이 주력이지만 저칼로리 과일드링크와 단백질음료 ‘WIZUS 프로틴8’, ‘방방곡곡 식혜’ 등을 자체브랜드로 생산해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WIZUS 프로틴8’은 싱가포르 수출을 앞두고 있으며 베트남 수출용 듀우 출시로 향후 해외 시장 진출에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건강한 식품을 생산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들에 감사한다”며 “㈜자연과사람들이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활용한 FTA 혜택과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삼성전자 ‘AI 무풍콤보 갤러리’ 에어컨 출시

삼성전자가 9일 2025년형 에어컨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를 출시했다. 신제품은 섬세한 습도 센싱·제어 시스템을 탑재해 쾌적함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패적제습’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 쾌적제습 기능은 습도에 맞게 냉매를 조절하는 기술로 열교환기를 필요한 만큼만 냉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냉기를 방출하지 않고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제습 기능 대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 또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사용 시간, 날씨와 냉방 공간의 면적 등을 분석해 최적의 냉방과 공기정정 기능을 알아서 제공하는 ‘AI 패적’ 기능을 지원한다.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전 모델은 에너지 소비효율 1·2등급을 갖췄으며,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AI 절약모드’를 설정하면 상황별 맞춤 절전

을 통해 최대 30%까지 추가 절약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15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1	25	27	32	37	38	2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394,358,197	21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6,747,136	86
3	5개 숫자일치					1,609,583	3,032
4	4개 숫자일치					50,000	155,209
5	3개 숫자일치					5,000	2,610,120